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8차 세션 , 갈릴리 에서의 예수의 사역 , 2부, 예수의 제자들 과 바리새인들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여기는 댄 다코 박사와 그의 루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8,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사역, 2부, 예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입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Biblical Elearning [Biblicalelearning.or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성경 e러닝 시리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루가 복음서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전달된 강의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나사렛의 회당에서 선언문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지적했고, 저는 인근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는 예수의 사역의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훈련시키고, 장비하고, 멘토링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빠르게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군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그분은 게네사렛 호수 옆에 서 계셨고, 호수 옆에 두 척의 배가 있었지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배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선생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그들을 도우라고 손짓하였고, 그들은 와서 배들을 가득 채웠고 두 배를 모두 가득 채웠으므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의 동료였으며,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로 몰고 왔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데오필로에게 편지를 쓰고, 예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를 시골의 하찮은 맥락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신뢰성은 그의 백성들에 의해 의심을 받았고, 예수가 제자들을 택할 때, 그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어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가장 멋진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찾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는 호수로 가서 이 사람들과 접촉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도에 표시한 대로, 지도에 두 개의 큰 물체, 두 개의 큰 수역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남쪽은 사해입니다. 사해는 정기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쪽은 갈릴리해입니다.

바다에서 당신이 있는 방향에 따라, 내가 보여준 지도에서 동쪽에 게네사렛 마을이 보일 것입니다. 그 특정 바다나 호수의 어느 해안이

가까운지는 종종 호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쪽을 향하고 있다면 게네사렛 호수일 수 있습니다.

서쪽에 있다면 갈릴리 호수일 수도 있고, 당신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베싸이다나 캄파니아 근처의 호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다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바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그가 군중에 압도당해 거의 그를 뛰어넘을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생활을 원했습니다. 바로 호수 옆에서 그는 빈 배 두 척을 보았습니다.

어부들은 밤새 낚시를 하러 갔다. 그들은 왔고, 평소처럼 그물을 고치기 위해 시간을 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전날 밤 낚시 탐험에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실례지만, 그들은 여전히 밤에 가는 다음 낚시 여행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했는지 확인하고 싶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중 하나를 빌리라고 하였고, 배를 타면서 이 특정 에피소드의 중심인 시몬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시몬이 배를 호수 쪽으로 조금 내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에게 사생활을 주었지만, 당신이 알지 못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배가 바다에 닿으면 대중 앞에서 말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

수역은 진동을 전달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음성을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다시 말해, 호수 옆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면 소리가 물에서 반사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음향 효과를 위해 이렇게 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더 많은 사생활을 위해,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위해,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예수께서 자신의 배를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는 데 동의했지만, 제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시몬이 예수를 기꺼이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시몬에게 축복이

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들어와 그물을 던져서 잡으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프로 어부들이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로 가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낚선 사람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서 순종의 표시를 봅니다.

그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두 배는 물고기로 가득 차서 가라앉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모두 해안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에서 사이먼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별한 초자연적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루가 복음에서 앞서 언급한 두려움과 경외감은 사람들이 신을 만날 때, 사가랴든 마리아든 매우 장엄한 방식으로 신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보통 그 영적 존재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진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예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물고기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시몬과 예수의 만남에 대해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만남입니다.

예수와 함께 여행할 12 제자의 리더가 될 사람의 시작을 알리는 만남이자, 사실 베드로의 시작과 부름을 알리는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나중에 3,000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세례를 받게 될 사람입니다. 시몬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중심 인물입니다. 시몬은 예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보통 상황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할 것이다. 그는 그것을 했고, 그는 결과를 보았다.

기적적인 어획은 시몬이 파트너를 모집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파트너인 제베데오 형제를 데려와 함께 어업에 참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제베데오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와 함께 어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후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금 일어난 멋진 일을 주목하세요. 이 거대한 캐치는 실제로 예수의 제자가 될 두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적은 믿음을 촉진하고, 믿음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래서 우리 는 여기서 제베데오 형제가 들어와서 그 장면에 합류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그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재빨리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을 정리한 다음 예수를 따르러 떠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잡은 상황은 베드로를 예수와 특별한 만남으로 이끌고, 경외감과 놀라움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그는 기적적인 잡이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고 그에게 한 말을 그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들을 잡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양떼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떠나서 따라갈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고 그의 추종자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워드 마셜은 이 표현, 두려워하지 말라에 흥미를 느끼고, 예수가 자신의 죄를 알고 경외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는 예수가 사실 죄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썼는데, 베드로가 그의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만, 그는 그를 더 가까운 관계와 더 가까운 제자 관계로 부르며, 이 시점부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베드로를 부르고 그의 동료인 두 명을 더 데려옵니다. 그들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는 펼쳐질 일련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5장 12절에서 6장 11절까지, 우리가 관찰해야 할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이 매우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유대의 남쪽에 있으며, 성전을 말할 가능성이 더 높고, 로마인들과 다른 외국인들과 많은 좋은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회당이 더 많은 곳에서는 회당의 서기관 중 일부는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는 많은 바리새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바리새인들은 그를 고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저 호기심 많은 무리일 뿐입니다. 때때로 많은 토론과 질문이 오갑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베데오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펼쳐질 기적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적을 제2성전 유대교의 맥락에 위치시키지 않는다면 제가 태만할 것입니다. 제가 여행하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생활 방식을 개선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적이 여러 면에서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그래서 기적을 믿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곳과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네 방향으로 5~8마일을 운전하면, 약 4개의 최고 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매우 좋은 병원입니다.

이런 곳은 당신을 돌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들이 그쪽으로 8마일이나 그쪽으로 5마일이나 그쪽으로 3마일만 운전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치유의 기적을 믿을 가능성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을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제2성전 유대교의 맥락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예수의 세계는 기적과 영적 만남이 전통의 일부인 세계입니다. 그의 문화는 기적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그의 백성의 배경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재앙을 통해 파라오와 이집트에 타격을 가하신 방법. 기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현현은 예수 문화의 일부이며 축제로 기념되기도 합니다. 갈대 바다나 홍해의 붉은색을 건너는 것은 제 2성전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를 읽는 고대 히브리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기적적인 수단으로 음식을 공급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성장한 방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이전에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상에서는 기적이 그렇게 먼 일이 아니며,

예수가 살았던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은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조건에서 그를 부를 때 신이 개입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적과 믿음은 신앙 운동이나 다양한 차원에서 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도전한 것입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루가 복음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원에 전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고 치유받아야 하며, 병원에 가는 것은 거의 악마의 활동에 연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아프리카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종교 운동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혈이 문제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이 다르려면 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예수의 사역과 관련된 기적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의 사역에서 기적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때때로 그는 기적을 행했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을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때로, 위의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이것이 신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의 힘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들은 경외감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나 성경의 다른 등장인물이 병원에 가지 말고 의사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는 곳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고대 텍스트에 나오는 현대적 질문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임무는 어떤 특정 집단의 종교적 교리를 비난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루가 복음을 다룰 때, 예수를 그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적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 정통 의학이나 상식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루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5장 12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도시에 있을 때, 온통 나병에 걸린 사람이 왔다. 그가 예수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내가 깨끗해지리라.

그러자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깨끗해진 것에 대한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서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무지로 물러가지 않고 황무지로 물러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십니다. 오늘날 나병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손과 발에 특정한 질환이 있는 매우 끔찍한 질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나병이라는 단어, 또는 나병이라고 불릴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나병은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식과 다른 천식을 앓았던 제 아내에게 가르쳤듯이 그녀가 나병에 걸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제가 나병이라고 말할 때, 저는 실제로 나병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가 그녀를 나병에 걸렸다고 비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녀가 우리 성경에서 나병으로 번역된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매우 심각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께 왔고, 몇 가지 일이 전개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가 종종 최악적인 상태로 여겨지는 상태인 더러운 나병 환자를 고칠 것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

이 사회에서는 질병이나 병이 종종 어떤 종류의 죄에 기인한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질병의 본질은 피부병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병환자가 12절에서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를 만지면 더럽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통 사회에서 격리되는 이유입니다. 나병환자가 마을 밖으로 보내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매우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현대적 격리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병환자는 마을 밖으로 보내짐으로써 격리됩니다.

하지만 예수는 여기서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제 동료가 말했듯이, 그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가 치유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고 들었다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가 더럽혀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를 만졌고,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유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역을 수행하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 그가 주장을 확인하고, 의식적 정화 의식을 거행하여, 실례합니다, 그가 사회에서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병환자를 치유하고, 그 사람을 사회에서 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놓아주셨고, 격리된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이 치유 후에 계속 나아가 바리새인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어느 날, 17절에 보면, 그가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모든 마을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쪽 유대에서 왔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어 치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어떤 사람들이 마비된 사람을 침대에 눕히고 그를 데려와 예수 앞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군중 때문에 그를 데려올 방법을 찾지 못하여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어 안개 속으로 예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심하기 시작하여, “이 검은 돼지를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마음속으로 왜 의문을 품는가? 말하기가 더 쉬운가?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는 다 용서되었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는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누워 있던 것을 집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감에 가득 차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처음 다섯 장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누가는 기적적인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병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풀어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종교 집단을 실제로 면밀히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설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스모네아 출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개인적인 경건함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비유대인과 어울리거나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의 로마인이나 그리스인, 그들과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유대인은 바리새인들이 상대하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회당에서 가르치고 서기관이라고 불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과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고, 메시아가 오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가 의로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들은 예수와 매우 자주 충돌했습니다. 역사가로서 바리새인에 대해 글을 쓴 요세푸스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생활 수준을 단순화했고 사치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하고 전달한 교리의 지침을 따랐으며, 그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에게 존경과 예의를 보였고, 그들의 제안을 성급하게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신앙이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죽음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보상과 처벌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감금은 악한 영혼의 운명인 반면, 선한 영혼은 다음 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비된 친구를 예수께 데려와 지붕을 통해 내려야 하는 이 특정 이야기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엄격하게 따를지 보고 싶어합니다. 또한 그분이 그들의 종교에 적합하지 않은 발언을 할지도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바리새인에 대한 묘사를 사용하여 누가복음을 해석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에 정통한 교육받은 엘리트가 성경을 세심하게 연구하는 데 집착하는 다른 종교 집단과 교류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루크가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약간 더 동정적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만 항상 예수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루크와 바리새인들에게. 첫째, 루크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충돌하고, 예수는 때때로 그들 중 일부와 충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매우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를 도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 중 일부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그 무리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유대인 공의회에

있는 바리새인이 베드로를 변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리새인이 바울을 대신하여 개입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가 다룰 이야기, 즉 마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끌려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그 남자를 데려오는 네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마가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올 사람이 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몇몇 남자들입니다. 누가의 서사에는 네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꺼내보고 싶습니다. 누가에서 그는 바리새인, 마비된 사람을 데려올 몇몇 남자, 군중,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친구가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 정확성을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정확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신학적 정확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가 신학을 철저히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군중, 군중은 평범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예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집에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감탄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장면에 계셔서 치유하고 용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경우 예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간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것이 더 쉬운지

물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마비되어 침대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운지? 분명히 누군가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타나야 할 눈에 보이는 징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치유할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누가는 그가 자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루크는 거의 자신이 누워 있던 것이 매트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워 있던 것을 꺼내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갈릴리에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쫓아오는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탐험을 시도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를 고의로 모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5장 27절에서 32절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가 다소 주변적인 또 다른 집단을 다루는 사건을 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볼 것입니다.

27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 한 사람이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레위가 큰 연회를 열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해 큰 연회를 열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종파에 속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불평했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로 부르러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세리들에 대해 들을 때, 누군가가 IRS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나쁜 평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삼촌 샘에게 세금을 덜 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우주 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세금 징수원은 세금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자로부터 X만큼 받은 다음 지역 사회에 와서 돈을 모아 사람들을 위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돈을 버는 방식 때문에 가장 독실하고 가장 윤리적인 사람들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종교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어부들을 불러서 그를 따르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세리들을 찾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시나요? 누가의 기록을 읽을 때 당신의 철학자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저는 당신이 교육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엘리트 문화에 대해 뭔가 말할 줄 알았습니다. 오, 아니, 하지만 그는 그에게 복음의 단순함과 예수께서 부르기로 선택하신 사람, 심지어 그의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레위라면, 이것은 사실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친구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그것에 대해 흥분했습니다. 그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미국 사역이라고 부르는, 음식 사역입니다.

내 집에 와, 내 집에 와. 생각해 봐. 이걸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야.

하지만 예수는 파티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파티에 가서, 파티에 나타난 사람, 세리들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이 First Presbyterian Church나 Second Baptist Church에 가서 예수님이 잘못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거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을 보세요.

30절: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아, 아니요, 잠깐만요. 29절에서 우리는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세리와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말은 없지만,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리와 죄인이라는 종교적 라벨을 붙였습니다.

왜 그들과 어울리나요? 예수께서 상황을 잘 처리하실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 세리 한 명을 자신의 팀에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들을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든 아니든,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잔치를 벌이셨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자 아닐까요?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루가 복음서에서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나중에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나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 경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당신이 더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매번 그들에게 적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가장 낮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왔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어부들도 포함되었다.

세리들도 포함됩니다. 사실, 이 경우 어부와 세리들은 그가 함께 여행할 가까운 동료가 될 것입니다. 6장부터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끝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65~75마일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 있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수님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면, 그는 또한 그들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들의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 6장, 그가 곡식밭을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은 곡식 이삭을 따서 먹고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 일부는 그들이 안식일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배고프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었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제 제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자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율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대인 역사에서 전통의 한 저명한 인물이 있었던 선례를 보았듯이, 다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율법에 기대되는 특정한 조건과 조항이 있으며, 엄격한 바리새인들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실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할 일입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할 것이지만,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와 그가 금식을 한 이유에 대해 질문할 때,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을 좋아한다고 말하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를 속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 찾기 사명이 그분과 함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들 중 일부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탐구하고 있던 이 특정 세션에서,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루가 복음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긴장 중 일부에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출현을 다시 볼 것이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마을에서 나온 30세 소년이 이제 갈릴리 지역 전체를 오염시키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우려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등에 업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소망은 또한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의로움을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라의 법적 지위에 따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강의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가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무엇이 없이 내면의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행동의 실제적 결과. 저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임할 때 우리가 그의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 내적으로도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번창할 만큼 심리적으로 충분히 좋다고 느끼게 하는 존재감은 모두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학습 경험에서 신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우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Dan Darko 박사와 그의 루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8,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사역, 2부, 예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입니다

.